시나리오

# **< 영업팀 >**

Q씨는 이번 여름부터 안양에 세워진 비트캠프 영업팀에서 일하게 됐다. 안양에 집이 있는 Q씨는 먼 동네까지 출퇴근하지않게 되어 매우 기뻐했다. 전에 있던 직장은 서울 강남에 있었는데, 강남은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하철에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긴시간동안 지하철을 서서 타야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은 없다!

새로운 직장, 비트캠프 안양점에서 영업팀 Q씨의 할 일은 강좌리스트에 오픈하기로 계획된 강좌들을 새로 작성해서 올리고, 학원에 등록하고자하는 학생들의 연락이 들어오면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 후,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에 학생들을 등록하는 것이다.

Q씨는 출근하자마자 컴퓨터를 켜서 비트캠프 안양점의 사이트에 접속했다. 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여름방학 특강 홍보가 보였다. Q씨는 맨 위의 비트캠프 로고의 오른쪽에 작은 로그인 글씨를 클릭했다. 클릭하자, 사이트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했다.

비트캠프 안양점은 각 부서별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주어진다. Q씨는 받은 영업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밑의 로그인을 클릭하여 영업팀으로서 로그인을 했다.

어제 다른 부서와 회의한 결과, 여름방학부터 자바강좌를 새로 오픈하기로 결정이 났었으니, Q씨는 자바 강좌에 대한 글을 올려야한다.

Q씨는 비트캠프 로고 밑에 있는 메뉴바에서 교육과정을 클릭했다. 교육과정 페이지로 이동하자, 현재 비트캠프 안양점에서 오픈한, 또는 오픈 예정인 강좌들의 리스트가 보여졌다. 강좌 리스트의 오른쪽에는 교육과정이라는 큰 메뉴와 강좌 추가, 수정, 삭제의 소메뉴가 있었다. Q씨는 그 중 강좌 추가를 클릭했다. 강좌 추가 페이지로 넘어오니 강좌시작날짜와 강좌기간, 강사이름 등을 입력하는 작성칸들과 강좌에 대한 설명을 입력할 수 있는 넓은 빈 작성칸이 보여졌다.

7월부터 오픈하는 자바강좌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 7월1일 오픈
* T강사님
* 6개월간
*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쉬운 자바 강좌
* 자바 마스터하기
* 등 등..

Q씨는 강좌명, 강좌시작날짜, 강사명, 강좌기간 등을 차례대로 입력했다. "매우 쉬운 자바클래스, 7월 1일부터, 6개월간, 프로그래밍을 하나도 모르는 당신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자바 강좌!... 3개월간 자바 마스터하기....! 등등..." 빈칸을 전부 채운 Q씨는 작성칸 제일 밑의 저장버튼을 클릭했다. 그러자 다시 강좌리스트가 나타났다. Q씨가 아까 교육 과정을 클릭해서 들어온 강좌리스트페이지와 다른 점은 맨 위에 방금 입력한 자바강좌가 추가되어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Q씨는 오늘이 마지막 수업인 강좌들을 리스트에서 삭제해야한다. Q씨는 강좌리스트에서 제일 밑으로 내려가 오픈 날짜가 제일 오래된 강좌들을 찾았다. 그 중 마지막 강좌가 오늘인 강좌가 3개, C언어, 자바스크립트, 봄에 시작했던 자바강좌가 있었다. Q씨는 자바스크립트 강좌명을 클릭했다. 강좌명을 클릭하자 해당 강좌의 글 페이지가 나타났다. 글의 제일 밑으로 내리자, 수정과 삭제가 보였다. Q씨는 삭제를 클릭했다. 삭제를 클릭하자, "강좌가 삭제되었습니다"라는 알림 메세지와 함께 다시 맨 처음 본 강좌리스트 페이지로 돌아왔다. 방금 삭제한 강좌가 있던 부분으로 리스트를 내려보니 강좌는 사라져있었다. C언어강좌와 봄에 시작했던 자바강좌도 마찬가지로 삭제해주었다.

그 때 같은 영업팀의 직원 S씨가 Q씨를 불렀다. S씨의 말을 들어보니, 자바강좌정보가 조금 수정되었다는 듯하다. 수정된 강좌정보는 이렇다.

* 7월1일 오픈
* T강사님
* 3개월간
*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쉬운 자바 강좌
* 자바 마스터하기
* 수강인원 30명(선착순)

Q씨는 S씨에게 알겠다고 대답하며, 교육과정의 강좌리스트에서 제일 위에 올라와있는 자바 강좌를 클릭했다. 오늘 출근하자마자 입력했던 그 자바 강좌글 페이지가 나타났다.

강좌에 대한 정보가 제일 위에 올라가 있었고, 그 밑에는 자바 강좌에 대해 간단한 설명과 홍보이미지가 있었다. 강좌 글의 제일 밑으로 내려가보니, 수정버튼이 있었다.

Q씨는 수정을 클릭했다. 수정을 클릭하니 강좌 추가를 클릭했을때 나타났던 작성칸들이 나타났다. 추가를 클릭했을때의 작성칸들과 다른 점은, 아침에 입력한 내용이 작성칸테 전부 들어가있다는 것이다. Q씨는 그 중, 강좌 기간 칸을 클릭하여 입력커서를 나타나게하고 6개월을 3개월로 다시 입력했다. 그리고 다시 강좌 글의 맨밑으로 내려가서 저장을 클릭했다. 이제 다 끝난 것같다! Q씨는 로고를 클릭하여 메인페이지로 돌아가려했다. 그러다 강좌 글의 수정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지않았다는 것이 생각났다. Q씨는 다시 교육과정을 클릭했다. 메뉴바 밑에 오늘 오전 내내 본 강좌리스트가 다시 나타났다. Q씨는 제일 위에 올라와있는 자바강좌 글을 클릭했다.

"매우 쉬운 자바클래스, 7월 1일부터, 3개월간, 프로그래밍을 하나도 모르는 당신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자바 강좌!... 3개월간 자바 마스터하기....! 선착순 30명.. 등등...다 됐군."

Q씨는 강좌글이 제대로 수정되어 올라간 것을 확인하곤, 사이트 맨 위의 로고 오른쪽의 작은 로그아웃 글씨를 클릭하여 로그아웃을 했다. 로그아웃하자, 사이트의 제일 처음 화면으로 돌아왔다. 이제 컴퓨터를 끄고 점심먹으러 가자.

# **< 학생 A >**

학생 A는 이번 여름방학에는 컴퓨터학원에서 자바와 데이터베이스를 배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학생 A의 주변에는 컴퓨터 관련 학과를 다니거나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 친구들을 통해 알아보니, 컴퓨터 관련 좋은 강좌를 열어주는 학원으로 비트캠프를 추천받았다. 마침 학생 A가 사는 안양에 비트캠프가 있다길래, 학생 A는 당장 비트캠프 안양점사이트를 검색해 접속했다.

비트캠프 안양점 사이트에 들어가자마자 보인 것은 사이트 가운데 커다란 이미지로 여름방학 특강홍보가 있었다. 여름방학 특강 홍보 이미지가 옆으로 넘어가더니, 그 다음 이미지로는 취업대비특강홍보가 보였다. 홍보 배너 위의 메뉴바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학원소개에 마우스를 올리니, 소메뉴에 오시는길, 인삿말, 강사진소개가 있었다.

먼저 오시는 길을 클릭해보았다. 페이지가 이동하더니 비트캠프 안양점의 위치를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비트캠프 안양점은 학생 A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학생 A는 비트캠프 안양점이 집에서 가까운 점이 맘에 들었다. 만약 비트캠프 안양점에 자바와 데이터베이스 강좌가 있다면 학원에 대해 더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메뉴바를 보니, 학원 소개메뉴 옆에 교육과정이 있었다. 학생 A는 교육과정메뉴를 클릭했다.

교육과정 메뉴를 클릭해서, 학생 A는 현재 비트캠프 안양점에서 열린 강좌리스트를 볼 수 있었다. 강좌는 시작하는 날짜가 빠른 순부터 차례대로 정렬되어 있었다. 쭉 내려보니 데이터베이스 강좌가 보였다. 데이터 베이스 강좌는 이미 저번달인 6월 1일에 시작했었다, 강좌가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나 지나있었다. 학생 A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하나도 모르기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처음부터 공부해야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미 강좌는 시작한지 한달이 넘었다... 학생 A는 데이터베이스의 강좌는 시작일로부터 벌써 한달이 지났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기도 힘들 뿐더러 중간부터 들어가는 자신은 수업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고민 끝에 학생 A는 이번 여름 방학동안 데이터베이스 강좌를 듣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다. 데이터베이스 강좌는 다음에 또 열리면 그 때 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며 학생 A는 강좌리스트에서 자바 강좌를 찾기로 했다.

리스트를 계속 밑으로 내려보는데 자바 강좌가 보이지않았다. 학생 A는 리스트를 내리며 자신이 놓쳤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메뉴바에서 교육과정을 다시 한 번 클릭해보았다.

화면에 강좌리스트의 가장 윗부분이 보여졌다. 학생 A는 리스트의 가장 위에 올라온 자바 강좌를 찾았다! 자바 강좌는 다음달 7월에 새로 시작하는 모양이었다. 7월1일 오픈이고, 선착순응로 30명까지 학생을 받는다고 되어있었다.

학생 A는 강좌 설명글에서 누구나 쉽게 배우는 자바!라는 문장이 마음에 들었다. 학생 A는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지만 자바도 한번도 공부한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으며 본 적도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자바 강좌라는 것이 학생 A는 너무 마음에 들었다.

학생 A는 7월 1일에 오픈하는 3개월짜리 자바수업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교육과정에 있는 강좌리스트는 강좌에 대한 일정과 같은 정보와 강좌에 대한 설명글만 있었다. 학생 A는 사이트의 메뉴바의 가장 오른쪽에 문의게시판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학생 A가 문의게시판을 클릭하자, 메뉴바 밑에 문의게시판이라고 나타나고 게시글을 작성하는 칸이 나타났다. 학생 A는 문의글의 제목을 입력하고,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순서대로 입력했다. 그리고 문의내용을 작성하는 칸에 강좌의 신청방법을 물어보고 내용작성칸 바로 밑에 있는 작성완료를 클릭했다. 다음은 학생 A가 입력한 내용이다.

* 제목 : 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이름 : A
* 전화번호 : 010-xxxx-xxxx
* 이메일 : xxxxx@gmail.com
* 문의 내용 : 7월 1일에 오픈하는 3개월의 자바강좌를 신청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빠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에 대해 빠른 답변을 보내드리겠다는 메세지가 나타났다. 밑에는 다시 홈으로 돌아가기가 있어, 학생 A는 다시 홈으로 돌아가기를 클릭하여 메인 홈으로 돌아왔다.

학생 A는 사이트를 좀 더 둘러본 후에 점심식사를 하기로 했다. 메뉴바에서 LMS라고 되어있는 메뉴가 있길래 클릭해보았더니, 로그인을 하라는 메세지가 나타났다.

"로그인을 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학생 A가 사이트를 자세히보니 맨 위의 비트캠프 로고 오른쪽에 작게 로그인이 있었다. 로그인을 클릭해보자, 메뉴바아래로 로그인이라는 글자와 함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칸이 나타났다. 그 밑에는 로그인과 회원가입이 있었다. 학생 A는 LMS가 뭔지 궁금해졌기때문에, 회원가입을 해보기로했다. 어차피 강좌를 등록하고나면 홈페이지의 다른 기능을 사용하기위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학생 A가 회원가입을 클릭하자, 메뉴바아래로 회원가입이라는 글씨와 함께 회원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나타났다.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입력해야했다. 학생 A는 아이디를 입력하고 중복검사를 거쳐 비트캠프 안양점 사이트내의 회원들의 아이디중에 학생 A가 입력한 아이디와 같은 아이디가 없음을 확인하고, 학생 A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그 밑에 개인정보에 대한 체크박스가 있어서, 학생 A는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의 표시로 체크박스를 체크했다. 그리고 학생 A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가장 밑에 있는 완료를 클릭했다.

* 아이디 : aaaa
* 패스워드 : xxxxxxx
* 개인정보 동의 o
* 이름 : A
* 전화번호 : 010-xxxx-xxxx
* 이메일 : xxxxx@gmail.com

"WELCOME! 어서오세요, A님"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는 메세지가 화면에 나타났다.

학생 A는 회원가입완료 메세지가 나타난 페이지에서 바로, 가장 위에 있는 비트캠프 로고의 오른쪽의 로그인을 클릭했다. 그러자, 회원가입하기 전에 봤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로그인 페이지가 다시 나타났다. 아까 회원가입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누르자, 화면은 다시 메인홈으로 돌아갔다. 같은 메인 홈이지만 로그인이 있었던 비트캠프 로고 오른쪽에는 학생 A의 이름이 있었다.

회원가입을 완료한 학생 A는 다시 메뉴바의 LMS를 클릭해보았다. 이번에는 "로그인을 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는 나타나지않았다.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메뉴바 밑에 LMS라고 나타나고, 그냥 비어있는 리스트가 나타났다. LMS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출결상태나 성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 A는 아직 수강생으로 등록되지않았기 때문에, 어떤 강좌를 듣고있는지, 출결상태는 어느정도인지, 시험성적은 어떤지 아무것도 나타나지않았다. 아마도 수강생으로 등록되어야만 등록한 강좌에 대해 출결이나 성적이 나타나는 모양이였다.

학생 A가 비트캠프 안양점 사이트를 다 둘러보고 난 후, 로그아웃하여 사이트를 나가려할 때, 전화가 왔다. 받아보니 비트캠프 안양점에서 학생 A에게 전화를 건 것이다.

행정직원이라는 P씨는 전화를 받은 사람이 학생 A인지 먼저 확인하는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비트캠프 안양점입니다. 학생 A맞나요?"

학생 A는 본인이 맞다고 대답했다. 행정직원 P씨는 학생 A가 듣고 싶어하는 7월1일 오픈 자바강좌에 대해 정보를 추가로 더 주셨다. 자바 강좌는 강의 교재비로 2만원이 들어가고, 신청한 학생은 벌써 15명을 넘었다고 한다. 행정직원 P는 학생 A한테 수업 등록 전에 해당 강좌의 강사님과 상담할 기회가 있다며 상담할거냐고 물어보셨지만 학생 A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행정직원 P씨는 해당 강좌의 수강생으로 등록하려면 먼저 비트캠프 안양점 사이트에서 회워가입을 해야한다고 말씀해주셨다. 학생 A는 이미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벌써 회원가입을 했다고 행정직원 P씨에게 알려드렸다. 행정직원 P씨는 그럼 해당 강좌로 학생 A를 등록해주겠다며 강의 오픈날 전까지 강좌 수강비를 결제하러 학원으로 방문해달라고 하셨다. 학생 A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수강등록 끝! 학생 A는 1일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했다.

학생 A는 어제 비트캠프 안양점에 방문하여 강좌 수강비를 결제하고 왔다. 오늘은 7월 1일, T강사님의 자바강좌의 첫 날이다. 방금 전까지 학생 A는 T강사님의 자바강좌를 수강하고 왔다.

집에 돌아와 비트캠프 안양점의 사이트를 다시 접속했다. 비트캠프 로고의 오른쪽의 로그인을 클릭하여 로그인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했다. 로그인에 성공하자, 다시 비트캠프 안양점 사이트의 첫 화면으로 돌아왔다.

학생 A는 메뉴바에서 LMS를 클릭했다. 수강생으로 등록되기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빈칸들이 이제는 채워져있다.

화면의 오른쪽에는 LMS라고 큰메뉴가 있고 밑에 출결과 성적이라는 소메뉴가 있었다. 학생 A가 LMS메뉴를 클릭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페이지는 첫 번째 소메뉴인 출결 페이지다.

자신의 이름이 왼쪽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으로는 출석한 날짜가 보인다. 아직 하루밖에 안갔으므로 7월 1일의 날짜만 입력되어있다. 그 옆에는 출결 상태가 있었다. 출결 상태 역시 오늘 첫날밖에 안갔으므로 1%라고 되어있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 강사님은 출결상태가 80%이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열심히 다녀야겠다고 학생 A는 다시금 결심했다.

이번에는 오른쪽의 LMS의 소메뉴에서 출결 밑에 있는 성적을 클릭해보았다. 성적을 클릭하자, 메뉴바 밑으로 성적이라고 나타나며 출결처럼 리스트가 나타났다. 앗, 그러보니 오늘 첫 수업은 오리엔테이션과 동시에 수강생들의 수준을 알아보기위한 테스트가 진행되었다. 성적으로 들어가니 그 결과가 나타나있었다. 학생 A의 이름과 날짜, 시험이름, 시험점수가 리스트로 나타났다.

학생 A는 예상했던 대로 낮은 점수가 입력되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도 그럴게, 학생 A는 정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자바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 수업떄 보니, 몇몇 수강생들은 컴퓨터 관련 전공이기라도 한지, 막힘없이 테스트를 풀어내는것을, 학생 A는 기억해냈다. 학생 A는 자신은 비전공자이지만 전공자들에게 지지않게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또 생각했다.

## **< 행정팀 >**

비트캠프 안양점 행정팀에서 일하고 있는 P씨는 출근하자마자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B가 오늘 수업에 출석하지 못할 것 같다는 전화였다. '각 수업의 출석 체크는 해당 수업의 강사님들이 하시는데....'라고 하자, B학생은 강사님의 연락처를 몰라서 이쪽으로 전화했다고 대답했다.

B가 듣는 수업의 강사님은 아직 출근하지않으셨다. 수업시작시간인데! P씨는 B학생의 결석에 대해 행정팀에서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P씨는 비트캠프 안양점 사이트로 접속했다. 맨 위에 비트캠프로고가, 가운데에는 이번에 오픈한 자바강좌를 홍보하는 이미지가 오른쪽으로 슬라이드로 지나가고 저번에 오픈한 데이터베이스 강좌를 홍보하는 이미지가 나타났다.

P씨는 먼저 제일 위에 있는 비트캠프 로고의 오른쪽에 로그인을 찾았다. 작은 로그인 글씨를 클릭하자, 메뉴바 밑으로 로그인이라는 글씨와 함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타났다. P씨는 컴퓨터밑에 붙여돈 비트캠프 안양점 행정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적힌 메모장을 보고, 행정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행정팀으로서 사이트에 접속했다.

학생의 출결관리와 관련있으니 출결관리 페이지로 가야한다. 출결관리는 지금 LMS에서 관리하고 있다.. P씨는 맨 위의 비트캠프 로고의 바로 밑에 있는 메뉴바에서 LMS를 찾아 마우스 커서를 올렸다. 그러자 LMS밑으로출결, 성적, 관리라는 소메뉴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 P씨는 출결을 클릭했다.

메뉴바밑에 큰 글씨로 출결이라고 나타나고 그 밑에 오른쪽에 밑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는 칸이 나타났다. 칸에는 C++강좌라고 되어있었고, 그 밑에는 C++강좌를 듣고 있는 학생들의 이름과 각 학생들의 출결 상태가 나타나있었다. P씨가 화살표를 클릭하자, 다른 강좌의 이름들이 주르륵 나타났다. P씨가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강좌를 클릭하자 리스트가 바뀌었다. 데이터베이스강좌를 듣는 학생들과 그 학생들의 출결 상태를 보여주는 리스트가 나타났다.

아직 강사님이 출근하시지않았으니 오늘의 데이터베이스 강좌를 듣는 학생들의 출결상태가 아직 저장되지않았다. P씨는 일단 B학생의 이름을 찾아, 이름 오른쪽에 있는 체크를 제거했다. 그러곤 리스트의 오른쪽 위에 있는 저장을 클릭했다. 클릭하자 각 학생들의 출결상태가 변했다.

P씨는 다른 결석 학생들의 출결체크는 이따가 출근하신 강사님이 하시겠지..,. 라고 생각했다.

리스트의 오른쪽에는 LMS라는 큰 메뉴와 밑으로 출결, 성적, 관리라는 소메뉴의 칸이 있었다. P씨는 아무 생각없이 그 중에서 성적을 클릭해보았다. 그러자 출결을 클릭했을때와 똑같이 C++강좌의 학생들 이름의 리스트가 나타났다. 출결 리스트와 다른 점은 출결상태가 아니라 각 시험의 성적이 입력되어있었다. P씨는 리스트 위에 있던 강좌명옆의 화살표를 눌렀다. 화살표를 클릭하니 C++강좌말고 다른 강좌명들이 나타났다. 강좌명리스트를 쭉내려 P씨는 데이터베이스 강좌를 클릭했다. 데이터베이스 강좌를 듣는 학생들의 이름과 성적이 있는 리스트가 나타나자, P씨는 그 중에서 B학생의 이름을 찾아 학생의 성적을 보았다.

B학생은 성적이 엉망이였다. 그런데 아까 출결리스트를 봤을때, B학생의 출결상태를 보니 B학생은 출결상태도 82퍼였다. P씨는 있다가 데이터베이스 강좌의 강사님이 출근하시면, B학생의 출결상태와 성적을 보라고 일러주고, 학생에게 출결 80이하면 불합이라는 것을 전달해달라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점심식사를 하고 온 행정직원 P는 다시 비트캠프 안양점 사이트에 접속했다. 비트캠프 로고의 오른쪽의 로그인을 클릭하여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행정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했다.

로그인에 성공한 P씨는 바로 문의 게시판으로 갔다. 오전에 영업팀에서 새 강좌글을 올려서 점심시간 전부터 행정팀으로 전화나 메일이 많이 왔었다. 모두 새 강좌를 수강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연락이나 문의였다.

비트캠프 로고 밑 문의게시판을 클릭하자, 게시글 리스트가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보내진 문의 내용들이 가장 위에 있었다. 대부분 점심을 먹으러가기전에 처리했지만, 또 왔을지도 몰라서 P씨는 문의게시판을 가장 먼저 열어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새 문의내용이 올라와 있었다.

* 제목 : 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제목의 문의 내용이 새로 올라와있었다. P씨는 그 문의글의 제목을 클릭했다. 그러자 문의 글의 내용이 화면에 나타났다. 학생 A가 7월에 오픈하는 자바 강좌, 그러니까 바로 오늘 오전에 영업팀이 올린 강좌를 수강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냐는 내용의 글이였다. 이메일로 답변을 해도 되지만 수강생을 빨리 모아야하기때문에, P씨는 문의 내용에 입력되어있는 학생 A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 전화를 받자, 먼저 학생 A 본인인지 물어보았다. 전화를 받은 누군가는 학생 A였다. 학생 A에게 자바 강좌가 7월 1일에 오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공지하고, 인원은 총 30명이며 T강사님이 진행한다고도 공지해줬다. 가끔 수강등록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강사님과 직접 상담해보고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어, 상담이 필요한지도 물어보았다.

학생 A는 이미 이 강좌를 등록하겠다고 결심한 것 같았다.

P씨는 학생 A에게 학원 수강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비트캠프 안양점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런데 학생 A는 이미 사이트에 회원가입도 했다고 한다. 아마 사이트를 대충 모두 둘러본 것 같았다.

P씨는 학생 A에게 수강비를 결제하러 학원을 꼭 방문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공지하고 통화를 종료했다.

회원가입도 했고 강좌를 수강하기로 결정한 학생이니 바로 원하는 강좌로 배정해줘야한다. P씨는 비트캠프로고 밑의 메뉴바에서 LMS에 마우스를 올렸다. LMS위에 마우스를 올리자, 소메뉴가 나타났다. 소메뉴로 출결, 성적, 마지막으로 관리가 나타났다.

P씨는 관리를 클릭했다. 관리를 클릭하자 검색하는 칸이 하나 나타났다. 학생이름을 검색하는 칸이다.

P씨는 학생 A의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했다.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관리자외 회원들의 목록이 여기 저장되어있다. 그 안에서 수강등록하고자하는 학생의 이름만을 검색하여 강좌수강등록을 해주면 된다.

학생 A의 이름을 검색하자, 오늘 오전에 회원가입한 학생 A, 전화번호 010-xxxx-xxxx가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 칸은 화살표가 있는 박스가 있었다. 박스의 화살표를 클릭했더니 현재 비트캠프 안양점에서 오픈한 강좌명이 주르륵 나타났다. P씨는 거기서 7월에 오픈한다고 했고, 학생 A가 수강하고 싶어했던 자바강좌명을 클릭했다. 그리고 이름검색결과 위의 또 검색창 위에 있는 저장을 클릭했다.

* 수강생 등록이 저장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수강등록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다.

이제 학생 A는 7월 오픈 자바강좌를 수강하는것으로 등록되었다. 학생 A는 이제 그 전에 학원을 방문하여 수강비만 결제해주면 된다.

## **< 강사팀 >**

비트캠프 안양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R씨는 오늘 수업은 조금 늦게 학원에 도착했다. 수강생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자리에 앉아 수업을 시작하기전에 오늘 출석한 학생들에 대해 출결 체크를 먼저하기로 했다.

R씨는 비트캠프 안양점 사이트에 접속했다. 접속하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동료 강사 T씨가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 담당하게 됐다는 자바 강좌에 대한 홍보 이미지가 보였다. 다른 홍보 이미지를 보여주는 홍보칸을 지나 R씨는 가장 위에 있는 비트캠프 로고 오른쪽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한 R씨는 화면에 나타난 아이디와 패스워드 칸에 강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했다.

강사로 로그인에 성공한 R씨는 바로 메뉴바에 있는 LMS위에 마우스를 올렸다. LMS에 마우스를 올리자 소메뉴로 출결과 성적이 나타났다.

R씨는 두 소메뉴 중 출결을 클릭했다. 출결을 클릭하자, 메뉴바 밑으로 출결이라고 나타나며 고급자바스크립트 강좌명이 적힌 화살표가 붙어있는 박스 칸과 고급자바스크립트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이름과 출결상태가 나타났다. 모든 학생들의 이름 옆에는 체크박스가 있었다.

R씨는 현재 데이터베이스와 고급자바스크립트 강좌를 맡고 있다.

R씨는 먼저 고급자바스크립트 강좌명이 적힌 화살표가 붙어있는 박스 칸에서 화살표를 클릭했다. 화살표를 클릭하니 고급자바스크립트강좌명 밑에 데이터베이스 강좌가 있었다. 지금 강의하러 들어온 수업은 데이터베이스 강좌다.

R씨는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했다.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자, 밑에 있던 학생리스트가 데이터베이스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리스트로 바뀌었다. 결석한 학생은 이름의 왼쪽에 있는 체크박스에서 체크표시를 없애주었다. 앗, 그런데 학생 B는 이미 체크표시가 없었다. 다른 학생들한테 물어보니 오늘 결석한다는 듯하다. 아마 행정팀에서 처리해준 것같다. R씨는 다른 결석한 학생들의 이름 왼쪽의 체크표시를 없애주고 오른쪽 위에 있는 저장을 클릭했다.

" 출결리스트가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메세지가 화면에 나타나면서 소메뉴 출결의 데이터베이스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 리스트가 나타났다.

R씨는 매 수업 시작전, 이 전 수업때 가르쳤던 내용을 바탕으로 쪽지테스트를 준비한다. 이번에도 쪽지테스트를 준비해왔다. 수강생들에게 쪽지테스트 용지를 나눠주고 풀게 하였다.

데이터베이스 수업이 끝나고 R씨는 오늘 수업시작 전에 학생들에게 풀게 했던 쪽지테스트를 채점했다. 채점하고 난 테스트 성적은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성적에 입력해줘야한다.

R씨는 LMS메뉴의 소메뉴 중에서 성적을 클릭했다. 메뉴바 아래로 성적이라고 나타나며 R씨가 담당하는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이름과 학생들의 성적 리스트가 나타났다. R씨는 먼저 고급자바사크립트라고 입력되어있는 화살표가 붙어있는 박스 칸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데이터베이스 강좌를 클릭했다. 그랬더니 데이터베이스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이름과 학생들의 성적 리스트가 나타났다.

R씨는 리스트의 오른쪽 위에 있는 수정을 클릭했다. 수정을 클릭하고 각 학생들의 이름 오른쪽의 수업날짜들이 있는 칸에서 오늘 날짜를 찾은 다음 오늘 본 쪽지테스트의 성적을 입력했다.

데이터베이스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오늘 본 쪽지테스트의 성적을 모두 입력한 R씨는 리스트의 오른쪽 위 수정 왼쪽에 있는 저장을 클릭했다.

"성적리스트가 저장되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로 비트캠프 안양점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LMS메뉴에서 성적 소메뉴로 들어가면, 오늘 본 쪽지테스트에 대한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